

“외출 삼가고 노출 피하는 게 상책”

■봄 불청객 황사 이렇게 대비하세요

집안 출입문과 창문 닫아 먼지 유입 막아야

외출 팬 보호안경·마스크·긴소매 의복 착용

축사·비닐하우스 등 황사 후 반드시 세척을

지난 20일 전국 대부분의 지방에 황사경보가 처음으로 발효 될 만큼 관측이 대기중인 황사농도가 최고 (광주 1.591㎍/㎥, 협산도 2.712㎍/㎥)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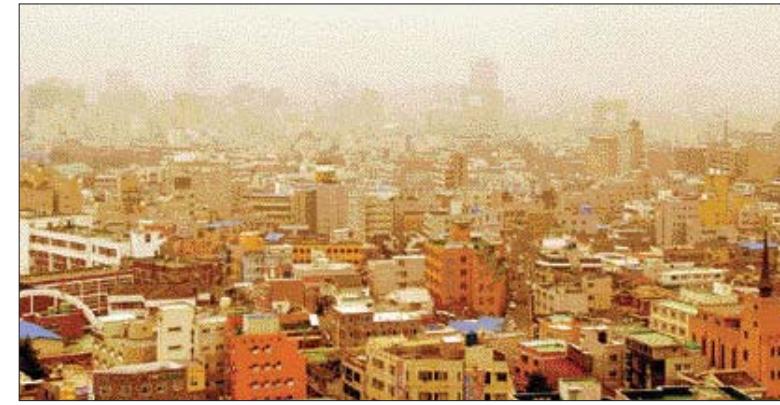
황사는 중국과 몽골지역의 사막에서 발원하여 기류를 타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 황사는 중국의 공업지대를 거치면서 카드뮴등 각종 중금속을 함유하면서 우리나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알레르기성 결막염, 비염, 기관지 천식, 피부 트러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가정에서는 벨레비전,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 기상 정보를 확인하여 노약자, 어린이는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고 황사가 실내에 유포되지 않도록 창문 등을 점검해야 한다. 부득이 외출시에는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을 착용하고, 귀가시에는

옷을 털어 먼지를 제거하고 손·발과 얼굴, 머리 등을 깨끗이 씻어 건강관리에 특히 유념해야 한다. 공동주택에서는 출입문과 계단의 창문 등의 시건장치를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안내방송 등을 통해 세대가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기상청 예보에 귀를 기울이고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황사피해 예방 행동요령을 사전에 교육해야 한다. 황사특보면 학생들의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상황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을 고려해야 한다. 황사가 끝난 후에는 실내·외 청소를 하여 학습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황사는 또한 자동차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미세한 먼지가 쌓여 자동차의 여러 부품들이 손상 되거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운



봄철 찾은 황사로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된다. 황사 발생에 따른 대처 행동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행중에는 창문을 닫고 흡입공기 조절레버를 외부의 공기 들어오지 않도록 조작해 놓아야 한다. 워셔액을 충분히 뿌려주어서 와이파이 블레이드와 유리면 사이에 달리기는 흙먼지와의 마찰로 인한 유리표면의 손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세차시에는 보닛을 열어서 에어클리너 필터에 먼지와 각종 전기장치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것이 좋다.

황사는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이 아직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시·도민 각자 대비책을 세우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봄철 찾은 황사,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다.

▲박종열 (광주시청 복지과)



지글지글~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먹고 싶다

두툼한 생오겹살에 참숯향 가득

■광주시 동구 충장로 ‘홍능갈비’

국수 잘 막는 이가 수제비도 잘 짖이고, 나무 잘 타는 사립이 해엄도 잘 친다.

광주시 동구 충장로 1가에 있는 홍능갈비(업주 윤종관)는 육즙이 풍부한 상상한 쇠고기로 유명한데, 최근 돼지고기 생오겹살을 내놨다. 입소문을 타고 주연인 쇠고기보다 조연인 돼지고기 생오겹살이 더욱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생오겹살은 매일 일리지 않은 고기를 공수해 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상상하다.

또 고기 사이의 지방 두께가 두툼해 고소한 맛이 나오고, 오돌오돌 씹는 맛도 살아있다. 참숯불에 구워 참숯의 향을 음미하며 먹을 수 있다.

구멍이 뚫린 불판에 굽기 때문에 기름이 쌓여 빠른 담백한 고기를 먹을 수 있고, 고기 표면에 뜨겁게 달라

붙어있는 ‘불 맛’도 느껴진다.

넉넉하게 내주는 상심한 야채에 마늘, 고추를 곁들여 쌈을 싸며 든 소주도 달게 마실 수 있다.

주인장이 전해주는 고기 맛있게 굽는 법 하나. 구울 때 자주 뒤집지 말아야 하는 것. 육즙이 빠져나가고 기의 맛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육즙이 배어나올 때까지 그대로 뒀다가 한 번만 뒤집어 익혀야 제맛이 난다.

또 빼놓을 수 없는 이 집의 요리는 청국장이다. 곰삭은 ‘군동내’가 덜 나고 고소한 국물이 맛의 비결이다. 청국장을 넉넉하게 넣어 콩을 건져 밤에 비벼 먹는 재미도 있고, 냄새가 덜해 여성에게도 추천할 만하다.

목은지와 파김치가 주도하는 이 집의 밀반찬도 정갈하다. 생오겹살 9천원, 청국장 5천원. 문의 062-222-1421. /오픈팀기자 kroh@kwangju.co.kr

/ 사진 =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작지만 소중한 이야기

광산구 ‘결혼이주여성 친정엄마되어주기 결연식’

문화갈등 해소·화목한 가정 이루는데 보탬됐으면



지난 22일 광산구청에서 여성단체 지도자 11명과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15명이 결연식을 갖고 친정엄마와 딸의 연을 맺었다. (광산구청 제공)

을 찾아 먼지로 결혼해 왔지만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과 가난한 생활고로 인해 결혼이주 여성의 가출이나 이혼으로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연로하신 부모가 아이까지 떠맡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여러한 사회문제를 예방하여 안정된 가정생활 정착을 위해서는 모든

여성에게 꼭 필요한 친정엄마가 결례에

있어야 하듯이 결혼이주여성에게는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돌봐주는 친정엄마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처음 실시한 이번 결연이 만족스러운 성과를 이어질 경우 앞으로도 친정엄마와 결혼이주여성 희망자를 모집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혜숙 (광산구청 기정복지과 여성 다문화정책팀장)

대부분 20대 나이 어린 여성이며 꿈

모 가족을 그리워하는 간절함과 외로움을 조급이라도 위로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언어, 가족 문제 등의 어려움을 극복해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하고 안정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결연을 한 친정엄마는 지속적인 교류 방송을 통해 이국생활에서 느끼는 딸의 외로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고민을 공유하고 어려만족 따뜻하고 자애로운 손길로 돌봐줄 것이다. 또한 가족간의 화해 조정 역할도 수행하여 다문화가정의 화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혼이주여성 친정엄마되어주기 결연식은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 (광산구 916명 거주)에 대한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제결혼으로 이주해온 여성의 타국에 계신 부

모 가족을 그리워하는 간절함과 외로움을 조급이라도 위로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언어, 가족 문제 등의 어려움을 극복해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하고 안정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결연을 한 친정엄마는 지속적인 교류 방송을 통해 이국생활에서 느끼는 딸의 외로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고민을 공유하고 어려만족 따뜻하고 자애로운 손길로 돌봐줄 것이다. 또한 가족간의 화해 조정 역할도 수행하여 다문화가정의 화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혼이주여성 친정엄마되어주기 결연식은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 (광산구 916명 거주)에 대한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제결혼으로 이주해온 여성의 타국에 계신 부

모 가족을 그리워하는 간절함과 외로움을 조급이라도 위로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언어, 가족 문제 등의 어려움을 극복해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하고 안정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결연을 한 친정엄마는 지속적인 교류 방송을 통해 이국생활에서 느끼는 딸의 외로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고민을 공유하고 어려만족 따뜻하고 자애로운 손길로 돌봐줄 것이다. 또한 가족간의 화해 조정 역할도 수행하여 다문화가정의 화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혼이주여성 친정엄마되어주기 결연식은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 (광산구 916명 거주)에 대한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제결혼으로 이주해온 여성의 타국에 계신 부

모 가족을 그리워하는 간절함과 외로움을 조급이라도 위로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언어, 가족 문제 등의 어려움을 극복해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하고 안정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결연을 한 친정엄마는 지속적인 교류 방송을 통해 이국생활에서 느끼는 딸의 외로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고민을 공유하고 어려만족 따뜻하고 자애로운 손길로 돌봐줄 것이다. 또한 가족간의 화해 조정 역할도 수행하여 다문화가정의 화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혼이주여성 친정엄마되어주기 결연식은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 (광산구 916명 거주)에 대한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제결혼으로 이주해온 여성의 타국에 계신 부

모 가족을 그리워하는 간절함과 외로움을 조급이라도 위로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언어, 가족 문제 등의 어려움을 극복해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하고 안정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결연을 한 친정엄마는 지속적인 교류 방송을 통해 이국생활에서 느끼는 딸의 외로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고민을 공유하고 어려만족 따뜻하고 자애로운 손길로 돌봐줄 것이다. 또한 가족간의 화해 조정 역할도 수행하여 다문화가정의 화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혼이주여성 친정엄마되어주기 결연식은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 (광산구 916명 거주)에 대한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제결혼으로 이주해온 여성의 타국에 계신 부

모 가족을 그리워하는 간절함과 외로움을 조급이라도 위로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언어, 가족 문제 등의 어려움을 극복해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하고 안정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결연을 한 친정엄마는 지속적인 교류 방송을 통해 이국생활에서 느끼는 딸의 외로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고민을 공유하고 어려만족 따뜻하고 자애로운 손길로 돌봐줄 것이다. 또한 가족간의 화해 조정 역할도 수행하여 다문화가정의 화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혼이주여성 친정엄마되어주기 결연식은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 (광산구 916명 거주)에 대한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제결혼으로 이주해온 여성의 타국에 계신 부

모 가족을 그리워하는 간절함과 외로움을 조급이라도 위로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언어, 가족 문제 등의 어려움을 극복해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하고 안정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결연을 한 친정엄마는 지속적인 교류 방송을 통해 이국생활에서 느끼는 딸의 외로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고민을 공유하고 어려만족 따뜻하고 자애로운 손길로 돌봐줄 것이다. 또한 가족간의 화해 조정 역할도 수행하여 다문화가정의 화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혼이주여성 친정엄마되어주기 결연식은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 (광산구 916명 거주)에 대한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제결혼으로 이주해온 여성의 타국에 계신 부

모 가족을 그리워하는 간절함과 외로움을 조급이라도 위로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언어, 가족 문제 등의 어려움을 극복해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하고 안정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결연을 한 친정엄마는 지속적인 교류 방송을 통해 이국생활에서 느끼는 딸의 외로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고민을 공유하고 어려만족 따뜻하고 자애로운 손길로 돌봐줄 것이다. 또한 가족간의 화해 조정 역할도 수행하여 다문화가정의 화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혼이주여성 친정엄마되어주기 결연식은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 (광산구 916명 거주)에 대한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제결혼으로 이주해온 여성의 타국에 계신 부

모 가족을 그리워하는 간절함과 외로움을 조급이라도 위로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언어, 가족 문제 등의 어려움을 극복해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하고 안정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결연을 한 친정엄마는 지속적인 교류 방송을 통해 이국생활에서 느끼는 딸의 외로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고민을 공유하고 어려만족 따뜻하고 자애로운 손길로 돌봐줄 것이다. 또한 가족간의 화해 조정 역할도 수행하여 다문화가정의 화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혼이주여성 친정엄마되어주기 결연식은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 (광산구 916명 거주)에 대한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제결혼으로 이주해온 여성의 타국에 계신 부

모 가족을 그리워하는 간절함과 외로움을 조급이라도 위로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언어, 가족 문제 등의 어려움을 극복해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하고 안정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결연을 한 친정엄마는 지속적인 교류 방송을 통해 이국생활에서 느끼는 딸의 외로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고민을 공유하고 어려만족 따뜻하고 자애로운 손길로 돌봐줄 것이다. 또한 가족간의 화해 조정 역할도 수행하여 다문화가정의 화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혼이주여성 친정엄마되어주기 결연식은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 (광산구 916명 거주)에 대한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제결혼으로 이주해온 여성의 타국에 계신 부

모 가족을 그리워하는 간절함과 외로움을 조급이라도 위로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언어, 가족 문제 등의 어려움을 극복해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하고 안정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결연을 한 친정엄마는 지속적인 교류 방송을 통해 이국생활에서 느끼는 딸의 외로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고민을 공유하고 어려만족 따뜻하고 자애로운 손길로 돌봐줄 것이다. 또한 가족간의 화해 조정 역할도 수행하여 다